

『帝王韻紀』를 통해 본 李承休의 고대사 인식

전 덕 재*

국문초록

본 논고는 李承休가 『帝王韻紀』를 찬술할 때에 활용한 전거자료와 그가 인용한 기록의 성격, 그의 고대사 편년과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各國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관하여 살핀 것이다.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찬술할 때에 『삼국사기』, 고려 후기에 찬술된 檀君本紀, 東明王篇에서 李奎報가 인용한 舊三國史 東明王本紀, 『新羅殊異傳』, 중국 사서 및 『尙書正義』, 백제고기를 비롯한 여러 고기류에 전하는 기록을 참조하였다. 그는 檀君이 前朝鮮을 다스린 기간과 위만조선 멸망에서 신라 건국까지의 기간을 잘못 추산하였고, 935년이 본래 단군 기원 3,268년인데, 이를 3,288년이라 잘못 표기하였다. 또한 궁예가 후고려를 890년 또는 900년에 건국하였다고 기술하여 혼동을 초래하였고, 대조영이 발해를 684년에 건국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이승휴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및 후백제, 신라 등 三韓을 완벽하게 통일한 왕조로 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한 가운데 대국에 해당하는 북·동부여와 남·북옥저, 尸羅, 高禮, 예와 맥, 沸流國의 君長은 단군의 후예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는 後朝鮮의 準王이 金馬郡으로 갔다고 주장하였고, 삼국 가운데 신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말기에 연개소문과 보장왕, 의자왕의 失政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혼란해져서 당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이외에 궁예와 견훤을 신라를 배반한 반란자로 규정하면서도 견훤이 고려에 귀부한 사실을 고려하여 궁예에 비해 그에 대해 좀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帝王韻紀, 李承休, 東明王本紀, 檀君, 三韓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고대사 체계와 各國에 대한 인식 |
| II. 인용 자료의 종류와 그 성격 | IV. 맺음말 |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dj8794@dankook.ac.kr

I. 머리말

『帝王韻紀』는 1287년(충렬왕 13)에 李承休에 의하여 찬술된 詠史詩이다. 이승휴는 本冊의 上卷에서 序에 이어 盤古부터 金나라까지의 중국 역사의 요점을 서술하고, 말미에 중국 여러 왕조를 正統과 傍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正統相傳頌을 추가하였다. 이어 下卷에서는 東國君王開國年代와 本朝君王世系年代로 크게 나누어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하였는데, 전자는 古代 여러 왕조의 興亡盛衰를 다룬 부분이고, 후자는 王建의 世系 및 고려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승휴는 7言 또는 5言의 시로 本文을 구성한 다음, 細注에 참조한 인용 자료를 소개하거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所見을 제시하였다. 이승휴는 上卷의 序에서 후세에 勸誡하기 위하여 『제왕운기』를 찬술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본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래에 이승휴의 생애와 정치활동 및 『제왕운기』의 편찬 동기, 『제왕운기』에 반영된 이승휴의 정치의식과 역사의식, 그의 문학과 불교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제왕운기』에 전하는 단군신화와 고조선,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연구도 상당 정도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 그런데 기존에 『제왕운기』에 나타난 이승휴의 고대사 인식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이승휴가 참조한 전거자료와 각국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성과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고대사의 편년과 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본고는 바로 이승휴의 고대사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본고의 Ⅱ장에서는 먼저 이승휴가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본문을 서술하였고, 아울러 細注에서 인용한 여러 자료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이승휴가 『삼국사기』를 주요 전거자료로 활용하고, 단군본기와 동명본기의 성격 및 세주에서 古記類에 전하는 여러 기록을 인용한 사실 등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어 Ⅲ장에서는 이승휴의 고대사 편년과 체계에 대한 이해, 各國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관하여 검토하려 한다. 먼저 이승휴의 편년 오류를 점검하고, 이어 후고려와 발해 건국 연대에 대한 그의 인식 등을 고찰할 예정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승휴가 고려가 최초로 삼한을 완벽하게 통일한 왕조라고 인식한 사실 및 삼한 가운데 대국에 해당하는 尸羅, 高禮, 부여, 옥저 등의 군장이 단군의 후예였다고 인식하였을 뿐이고, 삼한 70여 국 모두와 삼국의 군장이 단군의 후예라 이해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승휴가 고대의 각 왕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였는가를 살피려고 한다. 본고에서 부족한 점은 추후에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1) 이승휴와 『제왕운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박인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 2011이 참조된다. 한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한국고대사 사료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는 이승휴의 한국고대사 인식을 검토한 연구성과를 묶은 단행본으로서 주목된다. 이승휴의 고대사 인식 관련 개별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지를 전개하면서 설명할 예정이다.

II. 인용 자료의 종류와 그 성격

이승휴는 『帝王韻紀』 下卷 東國君王開國年代의 序에서 이것을 찬술할 때에 ‘삼가 國史에 의거하고, 각 본기와 殊異傳에 실려 있는 것을 널리 채록하거나 堯舜 이래의 經·傳·子·史를 참조하였다(謹據國史 旁採各本紀與夫殊異傳所載 參諸堯舜已來經傳子史)’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이승휴가 전조선부터 신라·발해 멸망까지의 역사를 서술할 때에 國史, 각 本紀 및 중국의 經·전·자·사를 전거자료로서 활용하였음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왕운기』에서 國史라는 표현을 東國君王開國年代의 서문 이외에 後高麗紀에서도²⁾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궁예가) 佛門에 歸依하여 물래 떠돌아다니다가 興敎寺(옛날의 善達寺이다. 혹은 浮石寺라고도 한다. 國史에 의거하여 정하게 되었다)에 머물며 托鉢하고 다니면서 齋食을 얻었다.³⁾

『삼국사기』 열전제10 궁예조에 乳母가 궁예에게 그가 버림받은 왕자였다는 사실을 알리자, 궁예가 유모에게 ‘만약 그렇다면 제가 떠나 어머니(유모)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문득 世達寺로 떠났는데, 그 사찰은 지금의 興敎寺이라고 전한다.⁴⁾ 이승휴는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궁예가 젊었을 때에 머물렀던 사찰을 興敎寺라 명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승휴는 興敎寺를 옛날에 善達寺 혹은 浮石寺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삼국사기』 궁예열전 이외의 또 다른 전승자료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승휴가 『제왕운기』에서 언급한 國史는 바로 『三國史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다.⁵⁾ 『제왕운기』의 신라기와 고구려기, 후고려기, 백제기, 후백제기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대체로 『삼국사기』에 전하는 기록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東國君王開國年代를 찬술할 때에 가장 많이 참조한 자료는 바로 『삼국사기』라 보아도

2) 이승휴는 東國君王開國年代에서 고구려, 후고려, 백제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高句麗紀, 後高麗紀, 百濟紀라는 標題를 붙였다. 한편 이승휴는 『動安居土集』 雜著에 실린 晉陽府 書記 鄭瑤에게 보낸 서간문, 즉 「與晉陽書記鄭瑤書」에서 초간본 하권 맨 앞, 즉 ‘遼東別有一乾坤’ 위에 ‘地理紀’ 3자가 빠졌고, ‘初離開國啓風雲’ 위에 ‘前朝鮮紀’ 4자가 빠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지적은 중간본과 삼간본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박대재,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인식」, 『민족문화연구』 94, 2022, 155쪽). 이에 의거하건대, 이승휴는 고구려기, 후고려기, 백제기 이외에도 지리지, 전조선기라는 표제를 사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나머지의 경우도 표제를 붙였는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필자는 이것들과 더불어 나머지의 경우도 편의상 후조선기, 위만조선기, 한사군·삼한기, 신라기, 후백제기, 발해기라는 표제를 달아 구분하였음을 밝혀둔다.

3) 『帝王韻紀』 下卷, 東國君王開國年代, “托跡浮圖潛遊行 棲興敎寺(古之善達寺也 或云浮石寺 以國史爲定) 遯齋去.”

4) 『삼국사기』 열전제10 궁예, “年十餘歲 遊戲不止. 其婢告之曰 子之生也 見棄於國 予不忍竊養 以至今日. 而子之狂如此 必爲人所知 則予與子俱不免 爲之奈何. 弓裔泣曰 若然則吾逝矣 無爲母憂. 便去世達寺 今之興敎寺 是也.”

5)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184쪽; 홍창우,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 - ‘수용’과 ‘배제’의 논리에 주목하여 -, 『전북사학』 64, 2022, 73쪽.

한편 국사는 박인호, 「『제왕운기』에 나타난 이승휴의 역사지리 인식」, 『조선사연구』 18, 2009, 15쪽에서는 구삼국사, 노명호, 「고려 전·중기에 역사서는 왜, 어떻게 다시 서술되었나」 『삼국사』 구성과 그 후의 변화, 『역사학보』 248, 2020, 19쪽에서는 吳良遇 등이 1286년 11월에 찬술한 國史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크게 이견이 없지 않을까 한다.

이승휴는 東國君王開國年代를 찬술할 때에 각 本紀를 참조하였다고 밝혔는데, 東國君王開國年代의 細注에서 이승휴가 本紀, 檀君本紀, 東明本紀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前朝鮮紀와 高句麗紀에 단지 ‘本紀’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하였다고 기술하였지만, 전자에서 인용한 본기는 단군본기, 후자에서 인용한 본기는 동명본기를 가리킨다고 이해된다. 이승휴가 참조한 檀君本紀의 성격을 考究하고자 할 때, 먼저 이것과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고구려조에 전하는 檀君記 및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靈異條에 전하는 檀君古記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1〉 단군본기와 단군기, 단군고기의 기록 비교

번호	『제왕운기』 인용	『삼국유사』 인용	『세종실록』 지리지 인용
I ①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 曰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獸. 故雄 受天符印 三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云云. 令孫女飲藥 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壽也.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爲神 不死故也		檀君古記云 上帝桓因 有庶子 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天王.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朝鮮·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理.
I ②	檀君本紀曰 與非西岬河伯之女婚而生男 名夫婁.	檀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婁.	檀君聘娶非西岬河伯之女生子 曰夫婁 是謂東扶餘王. 檀君與唐堯同日而立 至禹會塗山 遣太子夫婁朝焉. 享國一千三十八年 至殷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爲神 今文化縣 九月山.

『제왕운기』 인용 I-① 기록은 전조선기, I-② 기록은 한사군·삼한기에 전하는 것이다. I-②의 『제왕운기』 인용 단군본기 기록과 『세종실록』 지리지 인용 단군고기 기록을 비교하면, 두 기록이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I-① 『제왕운기』 인용 본기와 『세종실록』 지리지 인용 단군고기의 기록을 대조한 결과, 밑줄 친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일치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고조선조와 權攄이 지은 「應製詩註」에도 전한다. 두 기록 모두 古記에 전하는 단군신화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와 「응제시주」에서 인용한 古記에 전하는 단군신화에서는 桓雄과 熊女가 혼인하여 檀君(檀君)을 낳았다고 하였다. 반면에 본기와 단군고기에서는 손녀에게 약을 먹게 하여 사람이 되게 하고, 그녀와 檀雄이 혼인하여 檀君을 낳았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제왕운기』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인용한 본기와 단군고기에서 단군이 나라를 1,038년 동안 다스렸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승휴가 『제왕운기』 본문에서 단군이 1,028년 동안, 「응제시주」에서 1,048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술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군본기에 따르면, 단군은 堯임금이 즉위한 戊寅年에 朝鮮을 건국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요임금 무인년 즉위설은 1170년에 南宋의 羅泌이 지은 『路史』에

서 제기되었다고 알려졌다.⁶⁾ 결과적으로 단군본기와 단군고기에 전하는 단군신화는 요임금 무인년 즉위설에 입각하여 단군이 무인년에 조선을 건국하고 즉위하였다는 전제 아래 기술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들과 尸羅, 高禮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단군본기와 단군고기에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건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인용한 단군고기는 이승휴가 참조한 단군본기를 底本으로 하여 찬술된 전승자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⁷⁾

주지하듯이 이승휴가 참조한 檀君本紀와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古記에 전하는 단군신화는 내용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고려 후기에 단군신화와 관련된 다양한 버전의 전승자료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 1-②의 『제왕운기』 인용 단군본기와 『삼국유사』 인용 단군기 기록의 경우,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夫妻를 낳았다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전자에서는 ‘非西岬河伯’, 후자에서는 ‘西河河伯’이라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승휴가 인용한 단군본기와 일연이 인용한 단군기는 동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부루가 단군의 아들이라 하였던 바, 두 자료는 단군과 관련된 같은 계통의 전승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현재 단군본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한 문제는 이것을 구삼국사 편목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이다. 李奎報가 舊三國史 東明王本紀를 참조하여 東明王篇을 찬술하였다고 밝혔다. 종래에 동명왕본기가 구삼국사의 편목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단군본기도 구삼국사 편목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널리 수용되었다.⁹⁾ 반면에 일부 학자는 고려 전기에 평양에 위치한 조선을 건국한 시조가 단군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였다가 12~13세기를 거치면서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 고조선이며, 고조선의 시조가 바로 단군이라는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고려 후기에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단군본기 등이 찬술되었다고 이해한 견해를 제기하였다.¹⁰⁾ 그러면 과연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

구삼국사는 광종대(949~975)에 편찬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¹¹⁾ 만약에 단군본기가

6) 박대재, 「단군기원과 고기」, 『한국사학보』 61, 2015, 20쪽.

7) 최병현,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 고려시대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 『단군 - 그 이해와 자료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142~144쪽.

8) 「응제시주」에서 인용한 古記에 전하는 단군신화의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 전하는 단군신화의 그것과 일치하고, 또한 일부는 이승휴가 참조한 단군본기의 내용과 일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응제시주」에서 인용한 고기에 전하는 단군신화는 단군본기와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에 전하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찬술한 버전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종래에 단군신화의 내용을 『삼국유사』 유형, 『제왕운기』 유형, 『應製詩』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각 유형의 단군신화를 자세하게 분석한 연구성과가 제출된 바 있다(서영대, 「단군 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 그 이해와 자료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49~57쪽).

9) 이상호,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184~185쪽; 田中俊明,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 - 史料批判の再検討 -」, 『月刊韓國文化』 33, 韓國文化院, 1982, 7~9쪽; 강인숙, 「구삼국사의 본기와 지」, 『역사과학』 1985-4, 1985, 20쪽; 김정배,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328쪽; 홍윤식, 「삼국유사에 있어서 구삼국사의 문제」, 『한국사상사학』 1, 1987, 103쪽; 박인호, 앞의 논문, 2009, 15쪽; 이도하, 「단군 국조 의식과 경역 인식의 변천 - 『구삼국사』와 관련하여 -」, 『한국사상사학』 40, 2012, 391쪽.

10) 서영대, 앞의 논문, 1995, 59~69쪽; 김남중,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의 저자와 성격」, 『한국학연구』 74, 2020, 17~18쪽.
김남중은 단군본기를 柳璥(1211~1289)이 편찬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필자는 이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11) 정구복,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찬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1993; 『한국중세사학사』 I, 집문당, 1999.

구삼국사 편목의 하나였다고 한다면, 광종대에 이미 고조선이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며, 고조선의 건국자인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1123년(인종 원)에 송나라 使節의 한 사람으로 고려에 왔던 徐兢이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 始封條에 ‘고려의 선조는 周 武王이 朝鮮 제후에 책봉한 箕子인데, 이름은 胥餘이고, 姓은 子이다. …… 子姓이 나라를 다스린 지 8백여 년 만에 衛氏의 나라가 되었고, 위씨가 나라를 다스린 것이 80여 년이었다.’고 전한다. 서공은 고려인의 전언을 듣고 위와 같이 서술한 것으로 짐작된다.¹²⁾ 위의 기록에 따르면, 12세기 전반에 고려인들은 箕子朝鮮이 우리 역사의 시발점 이었고, 기원전 195년에 衛滿이 準王을 축출할 때까지 기자의 후예가 800여 년 동안 조선을 다스렸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2세기 전반 고려인들이 기자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발점이라 인식하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단군본기를 광종대에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는 구삼국사 편목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구삼국사 역시 삼국의 역사를 다룬 사서였다는 점에서 여기에 삼국 이전의 역사를 기술한 단군본기를 편목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색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승휴는 고려 후기에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건국자인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로 숭앙되면서 편찬된 단군본기의 기록을 『제왕운기』를 편술하면서 인용하였다고 정리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이승휴는 한사군·삼한기, 고구려기에서 동명본기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찬술하면서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두 자료에 전하는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제왕운기』와 동명왕편에 인용된 동명왕본기 기록

번호	『제왕운기』 인용	동명왕편 인용
Ⅱ ①	東明本紀曰 扶餘王夫妻 老無子 祭山川求嗣。所御馬至 鯢淵 見大石流涎。王怪而使 人轉石 有小兒金色蛙形。王曰 天錫我令胤乎。立爲太子 名曰金蛙。其相阿蘭弗曰 日者 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東海濱有地 號迦葉原 土宜五穀 可都也。勸王移都 號東扶餘云云。	本記云 夫余王解夫妻 老無子 祭山川求嗣。所御馬至 鯢淵 見大石流涎。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金色蛙形。王曰 此天錫我令胤乎。乃收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其相阿蘭弗曰 日者 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東海之濱有地 號迦葉原 土宜五穀 可都也。阿蘭弗勸王移都 號東夫余。
②	東明本紀曰 沸流王松讓謂曰 予以仙人之後 累世爲王。今君造國日淺 爲我附庸 可乎。則此亦疑檀君之後也。	讓曰 予是仙人之後 累世爲王。今地方至小 不可分爲兩王 君造國日淺 爲我附庸 可乎。

12) 중국 문헌에서 이른 시기부터 箕子가 조선을 건국하였다고 기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국인은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공이 중국인의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에 입각하여 고려의 선조를 기자라고 언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9년 가을 7월 기록에 거란의 東京留守에게 내린 국서에서 ‘본국은 箕子의 나라를 이어받아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았다(當國 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라고 언급한 내용이 전하여, 이미 문종대에 고려인들이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사』 권63 지17 예5 잡사조에 속종 7년(1102) 10월에 禮部가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가 箕子로부터 비롯하였음에도 祀典에 등재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아뢴 내용이 전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문헌에서 기자의 후손들이 8백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언급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과 문종대에 고려인들이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인식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서공은 고려인들의 전언을 듣고 고려의 선조를 기자라고 서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번호	『제왕운기』 인용	동명왕편 인용
③	(ㄱ) 本紀云 漢神雀三年壬戌 天帝遣太子解慕漱 遊扶餘王古都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乘白鵠云云. (ㄴ) 臺上立君臣之禮 獵於熊心山 河伯三女 出遊優渚之河 長女柳花爲王所止云云. (ㄷ) 文順公東明詩云 天孫河伯瑈.	漢神雀三年壬戌歲 天帝遣太子 降遊扶余王古都 號解慕漱 從天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鵠 彩雲浮於上 音樂動雲中 止熊心山 經十餘日始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光之劍 朝則聽事 暮則升天 世謂之天王郎.

『제왕운기』 인용 Ⅱ-①, ② 기록은 한사군·삼한기, Ⅱ-③ 기록은 고구려기에 전하는 것이다. 동명왕편 인용 Ⅱ-① 기록에 本記라 전하지만, 이규보는 동명왕편 서문에서 구삼국사 東明王本紀를 보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本記는 東明王本紀를 가리킨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승휴는 東明本紀라 기술하였는데, 이것 역시 東明王本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부여를 ‘扶餘’라 표기한 반면,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夫余’ 또는 ‘扶余’라 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본래 구삼국사에서 夫余 또는 扶余라 표기하였지만, 이승휴가 일괄적으로 扶餘라 개서한 것으로 짐작된다.

Ⅱ-③의 (ㄷ) 기록을 통해 이승휴가 동명왕편을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왕운기』와 동명왕편 인용 Ⅱ-①, ②의 기록을 서로 비교한 결과, 전자에서 후자의 내용을 벗어난 것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 하건대,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찬술할 때에 동명왕편에 전하는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일부 구절을 생략하거나 일부 글자를 개서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동명왕편에 인용된 동명왕본기에 ‘見大石流淚’라 전하는 것을 이승휴는 ‘見大石流殘’이라 서술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승휴가 이규보가 본 것과 다른 판본의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¹³⁾ 이와 관련하여 『제왕운기』 인용 Ⅱ-③의 (ㄴ)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왕운기』 인용 Ⅱ-③의 (ㄴ) 기록은 동명왕편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제1 동명성왕 즉위년조에 소개된 건국신화에 전하지 않는 내용이다. 만약에 이 기록이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에 전하는 기록이라 한다면, 이승휴가 동명왕편에 전하는 동명왕본기가 아니라 구삼국사 동명왕본기를 직접 보고, 거기에 전하는 기록을 『제왕운기』를 찬술하면서 직접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하였을까?

Ⅱ-③의 (ㄴ) 기록에 따르면, 해모수가 熊心山에서 사냥하였고, 柳花 등 세 자매가 優渚河에 나가 놀다가 長女인 유화가 해모수에게 붙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명왕편에 인용된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에서는 유화 등 세 자매가 압록강을 가리키는 靑河에서 熊心淵으로 나아가 놀았고, 그녀들이 해모수를 보자 물속으로 들어갔으며, 해모수가 銅室에서 배편 주연에서 大醉한 유화를 붙잡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河伯이 유화를 優渚水에 유배를 보냈는데, 후에 金蛙王이 거기에서 유화를 얻었다고 전한다. 유화 등 세 자매가 놀았던 곳이 Ⅱ-③의 (ㄴ) 기록에는 優渚河,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에는 熊心淵으로 전하는 사실을 미루어보건대,

13) 종래에 田中俊明, 앞의 논문, 1982, 8쪽과 서영대, 앞의 논문, 1994, 65~66쪽에서 이승휴가 구삼국사 동명왕본기를 직접 보고 인용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Ⅱ-③의 (ㄴ) 기록을 이승휴가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에서 인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Ⅱ-③의 (ㄴ)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승휴가 구삼국사를 직접 보고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인용하였다고 주장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건국신화에 따르면, 하백의 딸 유화가 동생들과 함께 나와 놀았는데, 이때 해모수가 유화를 熊心山 아래 鴨渌水 가의 집으로 꺾어서 私通하였고, 하백이 중매 없이 해모수를 따른 유화를 太白山 남쪽의 우발수에 유배보냈는데, 금와왕이 거기에서 유화를 만났다고 한다. 이에 의거하건대, Ⅱ-③의 (ㄴ) 기록은 『삼국사기』 찬자가 건국신화를 찬술할 때에 활용한 전거자료에 전하는 내용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승휴는 구삼국사 및 『삼국사기』 찬자가 활용하지 않은 또 다른 버전의 고구려 건국신화를 기술한 전승자료에서 Ⅱ-③의 (ㄴ) 기록을 인용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혹시 여기에 ‘見大石流淚’가 아니라 ‘見大石流殘’이라 전하였고, 이승휴가 이를 참조하여 동명왕편에 인용한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개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찬술할 때에 구삼국사에 전하는 동명왕본기를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규보가 동명왕편에서 인용한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인용하였고, 이외에 또 다른 버전의 고구려 건국신화를 기술한 전승자료를 참조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려 후기에 편찬된 단군본기와 동명왕편에서 인용한 동명왕본기 기록을 전거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승휴는 東國君王開國年代를 찬술하면서 冊名이 아니라 단지 ‘各本紀’를 참조하였다고 밝히지 않았을까 한다.¹⁴⁾ Ⅱ-①~③ 기록 이외에도 『제왕운기』 고구려기에 전하는 解慕漱 및 沸流國 松讓王과 관련된 내용은 이승휴가 동명왕편에 전하는 동명왕본기를 참조하여 찬술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승휴는 東國君王開國年代의 서문에서 殊異傳을 참조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細注에 거기에 전하는 기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수이전은 漢文說話集의 성격을 지닌 『新羅殊異傳』을 가리키는데, 현재 그것의 全文은 전하지 않고, 『三國遺事』·『太平通載』·『海東高僧傳』·『筆苑雜記』·『三國史節要』·『大東韻府群玉』·『海東雜錄』 등에서 그것의 逸文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신라수이전』의 저자에 대해서는 朴寅亮, 金陟明, 崔致遠이라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⁶⁾ 『제왕운기』에서 현재 전하는 『신라수이전』의 逸文과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이승휴가 『신라수이전』을 참조하여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주목되는 것이 新羅紀에 전하는 다음의 기록이다.

14)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영이조와 「응제시주」에도 동명왕편에 전하는 건국신화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전한다. 이들 자료에 전하는 기록과 동명왕편에 전하는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비교하면, 후자의 기록 내용을 벗어난 것을 전자의 기록들에서 찾을 수 없고, 또한 전자에서 후자에 전하는 일부 구절을 생략하거나 또는 일부 글자를 개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세종실록』 지리지와 「응제시주」의 찬자 역시 구삼국사 동명왕본기를 직접 보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동명왕편에 인용된 동명왕본기의 기록을 저본으로 하여 고구려 건국신화를 찬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15) 高句麗紀에 전하는 ‘父還天宮不復返’, ‘沸流國王松讓者 禮以後先開國爭 尋爲大雨所漂突 舉國款附輸忠誠’ 등이 이승휴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인용한 동명왕본기에 전하는 것을 참조한 사례에 해당한다.

16) 현재 최치원을 『신라수이전』의 원래 편저자로, 박인량을 증보자로, 김척명을 개작자로 이해하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현양 등, 『역주 수이전 일문』, 박이정, 1996, 7쪽). 『신라수이전』의 저자 및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준모, 「신라수이전 연구」, 『어문학』 35, 1976; 장경남, 「수이전 연구」, 『송실어문』 8, 1991; 곽승훈, 「『수이전』의 찬술본과 전승 연구」, 『진단학보』 111, 2011이 참조된다.

신라 시조 赫居世는 出自한 바가 人間界가 아니었다. 알이 하늘[蒼蒼]에서 내려왔는데, 그 크기가 박과 같았고, 붉은 실에 매달려 있었도다. 통속에 오래 살아 姓을 朴이라 하였으니〈신라인들이 朴[瓢]을 朴이라 불렀다〉, 이 어찌 하늘이 啓示한 바가 아니겠는가.¹⁷⁾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 始祖 赫居世居西干 즉위년조의 건국신화에는 혁거세가 蘿井 옆 숲속에서 발견된 큰 알에서 태어났고, 진한 사람들이 표주박[瓢]을 일컬어 朴이라 하였는데, 처음에 큰 알이 표주박처럼 생겼으므로, 이로 인해 朴을 姓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한편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는 蘿井 곁에서 발견된 보랏빛 알에서 혁거세가 태어났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혁거세가 태어난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 붉은 실에 매달려 있었고, 통속에 오래 살아 姓을 朴이라 하였다는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승휴가 두 문헌에 전하는 건국신화와 버전이 다른 내용의 건국신화를 기술한 전승자료를 참고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 이승휴가 수이전을 참조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건국신화의 내용과 버전이 다른 건국신화가 실려 있는 전승자료는 『신라수이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이승휴는 『제왕운기』 하권 東國君王開國年代의 後朝鮮紀에서 ‘尙書疎’를 인용하였다.¹⁸⁾ 이승휴가 인용한 ‘尙書疎’의 기록은 『尙書大傳』 권3 周傳 洪範條에 전하는 것이다.¹⁹⁾ 『尙書正義』 권12 周書 洪範第6에 ‘書傳云 武王釋箕子之囚……武王因其朝而問洪範’이라 전한다. 여기서 書傳은 『尙書大傳』을 가리킨다. 이승휴는 唐太宗 때에 편찬한 『五經正義』 가운데 하나인 『상서정의』에 전하는 書傳云 이하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 이승휴가 經典에서 인용한 기록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제왕운기』 하권 東國君王開國年代에서 이승휴가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한 것이 발견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제왕운기』 인용 기록과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

번호	『제왕운기』 인용 중국 사서 기록	중국 사서 기록
Ⅲ	① 五代史曰 高句麗扶餘別種也(高句麗紀).	高麗 本扶餘之別種(『舊五代史』卷138 外國列傳第2 高麗). 高麗 本扶餘人之別種也(『新五代史』권74 四夷附錄第2 高麗).
	② 五代史曰 渤海本號靺鞨 居營州東(渤海紀).	渤海 本號靺鞨 高麗之別種也. 唐高宗滅高麗 徙其人散處中國 置安東都護府於平壤以統治之(『新五代史』권74 四夷附錄第2 渤海).
	③ 又賈耽曰 大原南鴨綠血 扶餘舊地(漢四郡·三韓紀).	

17) 『帝王韻紀』 下卷, 東國君王開國年代 新羅紀, “新羅始祖突居世 所出不是人間系. 有卵降自蒼蒼來 其太如瓢紅縷繫. 箇中長生因姓朴(羅人呼瓢爲朴) 此豈非爲天所啓.”

18) 『帝王韻紀』 下卷, 東國君王開國年代 後朝鮮紀, “尙書疏云 虎王 箕子之囚 箕子走之朝鮮立國 虎王聞之因封焉. 箕子受封 不得無臣禮 因謝入覲 虎王問洪範九疇 在周之十三年也. 已下現於傳者 皆不注.”

19) 『尙書大傳』 卷3 周傳 洪範, “王釋箕子之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因以朝鮮封之. 箕子既受周之封 不得無臣禮. 故於十三祀 來朝. 武王因其朝 而問洪範.”

『구오대사』는 宋太祖 開寶 6년(973) 4월 25일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사이에 薛居正 등이 편찬한 五代(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 54년간(907~960)의 정사이다. 『신오대사』는 宋의 歐陽修가 『舊五代史』의 결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찬술한 것이다. 金나라 章宗이 『신오대사』만을 보도록 명령한 이후에 『구오대사』는 점차 읽혀지지 않게 되어 정사에서 제외되었다.²⁰⁾ Ⅲ-①의 『제왕운기』 인용 기록과 『구오대사』·『신오대사』에 전하는 기록을 비교하건대, 이승휴가 두 사서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Ⅲ-②의 『제왕운기』 인용 기록의 ‘渤海本粟末靺鞨’은 ‘渤海本粟末靺鞨’의 誤記인 것으로 짐작된다. Ⅲ-②의 두 기록을 비교하건대, 두 기록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新唐書』 卷219 列傳第144 渤海條에 ‘渤海 本粟末靺鞨 附高麗者 姓大氏. 高麗滅 率衆保挹婁之東牟山 地直營州東二千里’라 전한다. 이승휴가 『신당서』를 직접 보았음은 『제왕운기』 하권 本朝君王世系年代 가운데 태조 왕건의 世系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에서 ‘唐書曰 肅宗少封忠王’이라 기술한 사실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이승휴가 『당서(신당서)』를 직접 보았다는 점, 『신오대사』에 ‘渤海本粟末靺鞨 居營州東’이란 표현이 전하지 않는 점을 두루 감안하건대, 이승휴는 『신당서』에 전하는 기록을 참조하여 ‘渤海本粟末靺鞨 居營州東’이라 기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²¹⁾ 아마도 이승휴가 『신당서』를 『신오대사』라 착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승휴는 Ⅲ-③의 밑줄 친 부분을 가탐이 언급한 것이라 밝혔지만, 중국 사서에서 가탐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²²⁾ 이외에 위만조선과 한사군에 관한 내용은 이승휴가 『사기』 조선전을 비롯한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이승휴가 『삼국사기』, 단군본기와 동명왕본기, 『신라수이전』, 經典 및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하거나 또는 이것들을 참조하여 기술한 사실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승휴가 細注에서 언급한 기록 가운데 이것들을 참조하지 않은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주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 4> 古記類에서 인용한 細注 기록 일람

번호	標題	細注 기록
IV	① 前朝鮮紀	却後一百六十四 仁人聊復開君臣(一作 爾後一百六十四 雖有父子 無君臣)
	② 漢四郡·三韓紀	各自稱國相侵凌 數餘七十何足徵(稱國者 馬有四十 辰有二十 并有十二)
	③ 高句麗紀	麗祖姓高(王初誕 而學國高之 因以爲姓)諡東明
	④ 百濟紀	百濟始祖名溫祚 東明聖帝其皇考 其兄類利來嗣位 心不能平乃南渡(與母兄殷祚 南奔立國 殷祚立五月而卒)

20)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역주 3), 1989, 7쪽 및 41쪽.

清나라 乾隆 연간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에 邵晉涵 등에 의하여 『永樂大典』의 逸文 등으로 缺文을 보충·재복원하여 건륭 40년(1775)에 『구오대사』를 다시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武英殿本 『구오대사』이며, 이후 다시 정사로 편입되었다.

21) 김진광, 「이승휴 『제왕운기』의 고구려·발해 인식」, 『민족문화논총』 64, 2016, 484~486쪽.

22) 『삼국사기』 잡지제6 지리4 말미에 ‘賈耽古今郡國志云 渤海國南海鴨綠扶餘柵城四府 並是高句麗舊地也’라 전하는데, 혹시 이승휴는 이것을 근거로 ‘大原南鴨綠血 扶餘舊地’라 개서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긴 하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번호	標題	細注 기록
⑤	百濟紀	幾多紅粉墮清流 落花巖聳大王浦〈浦以王常遊得名 岩以宮女墮死得名 臣因出按 親遊其處〉
⑥	渤海紀	誰能知變先歸附 禮部卿與司政卿〈禮部卿大和鈞 司政卿左右將軍大理著 將軍申德·大德·志元等 六百戶來附〉

IV-① 기록에서 이승휴는 본문과 다른 異說을 細注에서 소개하였다. 그가 본문을 서술할 때에 참고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전이나 중국 사서 등에서 단군이 은나라 武丁 8년 을미년에 阿斯達에 들어가 神이 된 이후부터 箕子가 朝鮮에 와서 왕이 된 주나라 武王 원년 기묘년까지 164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고기류에 이 기간 동안에 仁人이 조선을 다스려 군신관계를 다시 열었다는 기록이 전하였고, 이것을 이승휴가 그대로 『제왕운기』에 인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승휴는 세주에서 다른 저작에는 본문에 소개한 것과 다른 서술이 있었음을 밝혔는데, 이것 역시 단군조선에 관하여 기술한 또 다른 고기류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IV-② 기록에서 ‘并有十二’는 ‘弁有十二’의 오키로 보인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조에 馬韓은 50여 국, 辰韓과 弁辰(弁韓)은 각기 12국이라 전하고, 『후한서』동이열전 한조에는 마한 54국, 진한과 변한 각각 12국이라 전한다. 『通典』 권185 邊防1 東夷上 馬韓條에는 마한 54국, 진한과 弁辰(弁韓) 각각 12국이라 전한다. 이처럼 중국 사서에서 마한 50여 국 또는 54국, 진한과 변한(변진) 각각 12국이라 전할 뿐이고, 마한 40국, 진한 20국, 변한 12국이라 전하는 기록을 중국 사서에서 찾을 수 없다. 이승휴는 중국 사서가 아니라 고려에서 전승된 古記類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IV-③ 기록에서 이승휴는 왕, 즉 朱蒙(東明)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온 나라가 그를 높이 받들었기 때문에 姓을 高라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제1 동명성왕 즉위년조의 건국신화, 『魏書』와 『周書』, 『北史』, 『隋書』 고려전에 주몽(東明)이 國號를 고구려라 하였기 때문에 高를 姓氏로 삼았다고 전한다. 한편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고구려조의 세주에 ‘本姓은 解이다. 지금 자신(주몽)이 천제의 아들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여 스스로 高로써 성씨로 삼았다.’고 전한다. 일연이 『삼국사기』 등에 전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유래를 소개한 것을 보건대, 고려시대에 주몽이 高를 성씨로 삼은 이유에 대하여 기술한 다양한 전승자료가 존재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승휴는 여러 전승자료에 전하는 언급 가운데 하나를 『제왕운기』에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하는 백제 건국신화에서 백제 시조 溫祚의 同母兄이 沸流라 하였다. 그런데 IV-④ 기록에서 이승휴는 온조의 母兄이 비류가 아니라 殷祚라 언급하고, 그가 왕위에 즉위하고 5개월 만에 사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동일한 기록은 다른 문헌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海東高僧傳』 권제1 釋摩羅難陀條에 ‘耆老記云 句高麗始祖朱蒙 娶高麗女生二子 曰沸流恩祖 二人同志 南走至漢山開國’이라 전하는데, 耆老記라는 고기류에서 沸流를 沸流, 溫祚를 恩祚라 표기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恩祚와 殷祚는 글자는 다르지만, 고려시대에 溫祚라는 이름에 유의하여, 그의 형을 殷祚라 개변한 전승자료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아마도 松讓王이 다스린 나라 이름이 沸流임을 주목하여, 온조의 형을 비류라 전하는 전

승을 수용하지 않고, 온조의 형을 殷祚라 부회한 다음, 그가 백제의 왕에 즉위한 지 5개월 만에 사망하자, 그의 동생인 온조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전승이 만들어졌으며, 이승휴는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전승 자료, 즉 고기류에 전하는 내용을 『제왕운기』 백제기에 인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태종춘추공조에 ‘百濟古記에 扶餘城 북쪽 모퉁이에 큰 바위가 아래로는 강물에 닿아 있는데, 전해오는 말로는 義慈王이 여러 後宮과 더불어 최후를 면치 못함을 알고 서로 말하기를 “차라리 자결할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하면서 서로 이끌고 이곳에 와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으므로 세상에서는 이 바위를 墮死岩이라 한다.’고 전한다. 백제고기에는 타사암을 낙화암이라 불렀다는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이승휴가 按廉使로 나아가 친히 낙화암에서 놀았다고 밝혔으므로,²³⁾ 적어도 13세기 후반에는 墮死巖을 落花巖이라 불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승휴는 一然과 마찬가지로 백제고기를 보았고, 이를 참조하여 IV-⑤ 기록의 細注를 찬술한 것으로 짐작된다.

IV-⑥ 기록은 발해인이 고려에 귀부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도 전한다.²⁴⁾ IV-⑥ 기록과 『고려사』·『고려사절요』에 공통적으로 전하는 인물은 예부경 대화균, 장군 신덕뿐이다. 司政卿左右將軍大理著와 將軍大德·志元 등은 『고려사』·『고려사절요』 등에 전하지 않는다.²⁵⁾ 일반적으로 『고려사』 태조대 기록의 원전은 7대실록 가운데 하나인 『태조실록』에 전하는 기록이라 이해하고 있다.²⁶⁾ 이렇다고 할 때, 이승휴는 『태조실록』이 아니라 이와 다른 별도의 전승자료를 참조하여 IV-⑥ 기록의 세주를 찬술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승휴는 『삼국사기』와 단군본기, 동명왕본기, 『신라수이전』, 經典, 『신오대사』·『신당서』를 비롯한 여러 중국 사서, 이외에 野史에 가까운 내용을 기술한 각종 고기류를 참조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一然이 『삼국유사』를 찬술하였는데, 이승휴는 일연에 비하여 풍부한 전거자료를 참조하여 『제왕운기』 하권 東國君王開國年代를 찬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일연이 『삼국사기』에 전하지 않으면서도 고려 후기까지 남아 있는 불교 관련 전승자료를 중심으로 한 삼국의 事跡을 다룬 저작

23) 『고려사』 이승휴열전에 이승휴가 楊廣·忠淸道の 안렴사를 역임할 당시 부패를 저지른 관리 7명을 탄핵하고 그들의 가산을 적몰하였다가 도리어 東州副使로 폄출되었다고 전한다(『고려사』 권106, 열전19 이승휴, “累遷右司諫 出按楊廣忠淸二道 劾賊吏七人 籍其家. 由是 怨謫頗興 尋貶東州副使.”).

2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8년, “秋九月 丙申 渤海將軍申德等 五百人來投. 庚子 渤海禮部卿 大和鈞均老 司政大元鈞 工部卿 大福謨 左右衛將軍大審理等 率民一百戶來附. ……大諍譟戰敗乞降 遂滅渤海. 於是 其國人來奔者相繼.”
『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 을유, “十二月契丹滅渤海. 渤海本粟末靺鞨也. ……契丹主 大舉攻渤海 圍忽汗城 滅之 改爲東丹國. 其世子大光顯 及將軍申德 禮部卿大和鈞均老 司政大元鈞 工部卿大福謨 左右衛將軍大審理 小將冒豆干 檢校開國男朴漁 工部卿吳興等 率其餘衆. 前後來奔者 數萬戶. 王待之甚厚 賜光顯姓名王繼 附之宗籍 使奉其祀 僚佐 皆賜爵.”

25) 『제왕운기』와 『고려사』 등에 전하는 발해인의 고려 귀부와 관계된 기록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임상신, 『『제왕운기』에 보이는 북방왕조 인식』, 『사학연구』 103, 2011, 50~51쪽; 김진광, 앞의 논문, 2016, 490~491쪽이 참조된다.

26) 김광철, 『고려 초기 실록 편찬』, 『석당논총』 56, 2013에서 조선시대에 『고려사』 찬자들이 七代實錄을 기초로 하여 『고려사』를 찬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주량 등이 현종 18년 무렵에 칠대실록을 완성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여기에서 황주량 등이 편찬한 『태조실록』이 『고려사』의 찬술에 적극 활용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주목된다.

27) 한편 후백제기에 ‘加恩縣人阿慈介 生得一兒業農圃 置向田頭夫婦耘 鳥來舒覆虎來乳’라 전한다. 『삼국사기』 열전제10 견훤조에는 ‘初 萱生孺穉時 父耕于野 母餉之 以兒置于林下 虎來乳之 鄉黨聞者異焉’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승휴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전거자료로 삼은 다음, 자의적으로 ‘鳥來舒覆’이란 구절을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구절이 포함된 또 다른 버전의 견훤 출생 관련 기록을 근거로 하여 위의 기록을 서술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들을 두루 망라하려 의도하였음에 반하여, 이승휴는 유교적 합리주의와 鑑誠主義에 입각하여 주로 고대 왕조의 興亡盛衰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고려 후기에 전승된 고대사 관련 사서와 서적, 금석문과 고기류 등을 두루 섭렵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Ⅲ. 고대사 체계와 各國에 대한 인식

1. 고대사 편년과 체계에 대한 이해

이승휴는 『帝王韻紀』에서 檀君이 帝高, 즉 堯가 唐을 건국하여 帝位에 오른 戊辰年에 前朝鮮을 건국하고 왕위에 올랐으며, 전조선을 1,028년 동안 다스리다가 殷 武丁 8년 乙未에 阿斯達山에 들어가 神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後朝鮮의 시조인 箕子가 周 虎王(武王)²⁸⁾ 己卯 봄에 조선에 와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고, 그 후손이 후조선을 928년 동안 통치하였다가 高帝, 즉 漢 高祖 12년(기원전 195) 丙午에 衛滿이 기자의 후손인 準王을 쫓아내고 나라를 빼앗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檀君이 阿斯達山에 들어가 신이 된 이후부터 기자가 조선에 오기까지 164년 동안에는 仁人이 조선을 다스렸다고 기술하였다.

위만이 기원전 195년에 준왕을 쫓아냈다고 하였으므로,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된 것은 이로부터 928년 전인 기원전 1,122년이 된다. 그런데 堯가 唐의 帝位에 오른 戊辰年은 기원전 2,333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군이 전조선을 다스리다가 아사달의 산신이 된 것은 이로부터 1,028년 후인 기원전 1,306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단군이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고 184년 뒤에 기자가 조선에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휴는 단군이 아사달산의 신이 되고 나서 164년 뒤에 箕子가 조선에 왔다고 언급하여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에 찬술된 「東國世年歌」²⁹⁾ 및 「응제시주」에서 인용한 古記, 그리고 『東國通鑑』 外紀 檀君朝鮮條에서 모두 단군이 1,048년 동안 조선을 다스리다가 商 武丁 8년 乙未에 阿斯達의 山神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이승휴가 戊辰年에 왕위에 오른 단군이 1,028년 후인 殷 武丁 8년 을미에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오류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승휴가 계산을 잘못하여 ‘享國一千四十八’을 ‘享國一千二十八’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한다.³⁰⁾

이승휴가 계산을 잘못된 사례를 또 발견할 수 있다. 위만조선기에서 漢 武帝가 元封 3년(기원전 108) 癸酉에 위만의 손자인 右渠를 정벌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신라기에서 赫居世가 漢 宣帝 五鳳 원년(기원전 57) 甲子에 신라를 건국하였으며, 한사군·삼한기에서 한사군을 설치한 때부터 신라가 일어나기까지 헛수를 헤아리면 72년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사군을 설치한 기원전 108년부터 신라가 건국한 기원전 57

28) 고려 제2대왕 惠宗의 이름이 王武였다. 이승휴는 武를 避諱하여 虎로 표기한 것이다.

29) 세종의 명으로 尹淮와 權躋가 1436년(세종 18)에 찬술한 『歷代世年歌』는 上冊과 下冊으로 구성되었는데, 상책은 중국의 역사를 다룬 것이고, 하책이 바로 權躋가 우리 역사에 대해 기술한 「동국세년가」이다.

30) 박대재, 앞의 논문, 2022, 162~163쪽.

년까지는 52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사군을 설치한 때부터 신라가 일어나기까지 햇수로 72년이 된다고 언급한 것도 역시 오류라 말할 수 있다.

신라기에서 金傳大王, 즉 敬順王이 後唐의 末帝 때인 淸泰 2년(935) 乙未 仲冬에 고려 태조에게 歸附하였다고 언급한 다음, 檀君 元年 戊辰으로부터 이때까지 무릇 3,288년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단군 기원을 사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이승휴가 단군의 조선 건국을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935년은 단군 기원 3,288년이 아니라 3,268년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이승휴가 잘못 계산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³¹⁾

이승휴는 후고려기에서 ‘당나라 昭宗(昭宗)³²⁾ 大順 원년 庚戌에 궁예가 후고려라 칭하고 왕의 깃발을 세웠다.’고 서술하였다. 大順 원년은 890년(진성왕 4)에 해당한다. 한편 고구려기에서 당나라 高宗 總章 원년 무진년(668)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로부터 231년 동안은 고구려의 영토가 신라인에 의하여 병합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고구려가 멸망한 지 231년 후에 다시 고구려가 부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고구려의 부활은 궁예의 후고려 건국과 동일시하여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고구려기의 기록에 유의한다면, 이승휴가 900년에 후고려가 건국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³⁾ 결과적으로 이승휴는 후고려기에서 궁예가 후고려를 890년에, 고구려기에서는 900년에 건국하였다고 달리 설명한 셈이 된다고 하겠다.

현재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궁예열전에서 890년 또는 900년에 궁예가 후고려를 건국하였다고 전하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이승휴는 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東州(강원도 철원군)와 金城(북한의 강원도 김화군 김화읍) 주민들의 傳言을 참조하여 후고려 890년 건국설을 후고려기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고구려기의 기록은 본래 ‘二百二十一’이었는데, 이것을 ‘二百三十一’로 잘못 표기하였거나 아니면 판각 과정에서 ‘二’를 ‘三’으로 잘못 판각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후백제기에서 견훤이 後唐 昭宗(昭宗) 景福 元年(892) 임자에 虎珍城(武珍城)에 雄據하여 처음으로 깃발을 세웠다고 언급하였다. 『삼국사기』 열전제10 견훤조(이하 견훤열전이라 서술)에 견훤이 唐 昭宗 景福 원년(892)에 武珍州를 습격하여 차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다만 감히 공공연하게 왕을 칭하지 못하고, 스스로 署名하여 新羅 西面都統 指揮兵馬制置 持節都督 全武公等州軍事 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 上柱國 漢南郡 開國公 食邑二千戶라 하였다고 전한다. 이승휴는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견훤이 892년에 무진성에 雄據하며 기틀을 다졌다고 인식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승휴는 후백제기에서 견훤이 淸泰 3년(936) 丙申 봄에 고려 태조에게 歸附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 견훤열전과 『고려사』 태조세기에 935년(태조 18) 6월에 견훤이 고려에 귀부하였다고 전하여³⁴⁾

31) 박대재, 위의 논문, 164쪽.

32) 고려 제4대 광종의 이름이 王昭이다. 昭를 피휘하여 昭라 표기한 것이다.

33)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다음해부터 계산하면 후고려가 900년에 건국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4) 『삼국사기』 열전제10 견훤, “至淸泰二年(935) 春三月 與波珍浪新德英順等勸神劒 幽萱於金山佛宇 遣人殺金剛. 神劒自稱大王 大赦境內……限淸泰二年(935) 十月十七日昧爽以前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大辟已下罪 咸赦除之 主者施行. 萱在金山三朔 六月 與季男能義·女子哀福·嬖妾姑比等逃奔錦城 遣人請見於太祖. 太祖喜 遣將軍黔弼·萬歲等 由水路勞來之. 及至 待以

차이를 보인다. 한편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후백제 견훤조에는 견훤이 나라를 다스린 지 43년 淸泰 元年 甲午(934년)에 견훤의 세 아들이 반역하여 견훤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는 기록, 935년에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여기에 병신년(936) 정월에 견훤이 그 아들에게, ‘내가 신라 말에 후백제를 세운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군사는 북쪽의 고려 군사보다 갑절이나 많으면서 오히려 이기지 못하니 필경 하늘이 고려를 도우는 것 같다. 어찌 북쪽 고려왕에게 귀순해서 생명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 그 아들 神劍·龍劍·良劍 등 세 사람이 모두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하는데,³⁵⁾ 이에 따르면, 견훤이 936년에 고려에 귀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견훤열전과 『고려사』 태조세가에 전하는 것처럼 견훤이 935년 6월에 고려에 귀부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견훤의 귀부 시기에 대하여 934년설, 936년설도 고려 후기에 전승되었음을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휴는 여러 의견 가운데 936년설을 수용하여 『제왕운기』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渤海紀에서 이승휴는 전고구려 장수 大祚榮이 周 則天武后 원년 甲申, 즉 684년(신문왕 4)에 발해를 건국하였고, 발해는 고려 태조 8년(925)에 멸망하여 242년 동안 국가를 유지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현재 『구당서』 발해말갈전에 大祚榮이 聖曆中(698~699)에 振國王을 自稱하였다고 전하는 기록,³⁶⁾ 『類聚國史』에 文武天皇 2년(698)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전하는 기록³⁷⁾ 등에 의거하여 대조영이 698년에 振國(渤海)을 건국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승휴는 684년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 대조영이 이와 같이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하다.

『구당서』 발해말갈전에 성력 연간(697~698)에 대조영이 振國王을 자칭하였다고 전하지만, 이승휴는 이러한 사실을 대조영의 발해 건국과 직결시켜 이해하지 않았다. 한편 一然은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말갈발해조의 細注에서 ‘三國史에 이르기를, “儀鳳 3년 高宗 戊寅에 고구려의 殘孽이 무리들을 모아 북쪽으로 太白山 아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워)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고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의 원전은 『삼국사기』 열전제6 최치원조에 전한다. 여기에 ‘그의 문집에 太師 侍中에게 올린 편지(上太師侍中狀)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치원이) 이르기를, “앞드려 듣건대 東海의 바깥에 三國이 있다. …… 摠章 元年(668)에 英公 徐勣

厚禮 以萱十年之長 尊爲尙父 授館以南宮 位在百官之上. 賜楊州爲食邑 兼賜金帛蕃緡·奴婢各四十口內廐馬十匹.”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8년, “春三月 甄萱子神劍 幽其父於金山佛宇 殺其弟金剛. …… 夏六月 甄萱與季男能義·女哀福·嬖妾姑比等奔羅州 請入朝. 遣將軍庚黔弼·大臣萬歲·元甫香義·吳淡·能宣·忠質等 領軍船四十餘艘 由海路迎之. 及至 復稱萱爲尙父 授館南宮. 位百官上 賜楊州爲食邑 兼賜金帛·奴婢各四十口·廐馬十匹 以先降人信康爲尙官.”

35)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후백제 견훤, “年十五 自稱甄萱. 至景福元年壬子稱王 立都於完山郡. 理四十三年 以淸泰元年甲午(934) 萱之三子篡逆 萱投太祖 子金剛即位. …… 丙申(936) 正月 萱謂子曰 老夫新羅之季 立後百濟名 有年于今矣. 兵倍於北軍 尙爾不利 始天假手爲高麗 蓋歸順於北王 保首領矣. 其子神劍·龍劍·良劍等三人皆不應. …… 至淸泰二年乙未(935) 春三月 與英順等勸神劍 幽萱於金山佛宇 遣人殺金剛. 神劍自稱大王 赦境內(云云) …… 俄移父於金山佛宇 以巴達等壯士三十人守之. …… 萱與後宮年少男女二人 侍婢古比女 內人能又男等囚繫 至四月釀酒而飲 醉守卒三十人 而與小元甫香又·吳琰·忠質等 以海路迎之. 既至 以萱爲十年之長 尊號爲尙父 安置于南宮 賜楊州食邑田庄奴婢四十口馬九匹 以其國來降者信康爲尙前.”

36) 『구당서』 권199하, 열전제149하 발해말갈, “祚榮驍勇善用兵 靺鞨之衆及高麗餘燼 稍稍歸之. 聖曆中 自立爲振國王 遣使通于突厥.”

37) 『類聚國史』 권193, 延曆十五年 四月 戊子, “渤海國者 高麗之故地也. 天命開別天皇七年 高麗王高氏爲唐所滅也. 後以天之眞宗豐祖父天皇二年 大祚榮始建渤海國.”

여기서 天命開別天皇은 天智天皇, 天之眞宗豐祖父天皇은 文武天皇을 가리킨다.

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격파하고 安東都督府를 두었다가 儀鳳 3년(678)에 이르러 그 사람들을 河南·隴右로 옮겼다. 고구려의 殘孽이 무리를 모아 북쪽으로 太白山 아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워)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고 한다."고 전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의봉 3년에 고구려 유민을 하남과 농우로 옮겼고, 그 이후에 고구려의 잔여가 발해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연은 고구려 유민을 하남과 농우로 옮긴 의봉 3년에 고구려의 잔여가 발해를 건국한 것처럼 잘못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대조영이 678년에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승휴 역시 『삼국사기』 열전제6 최치원조에 전하는 기록에 의거하여 『제왕운기』 본문에 '전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 남쪽 성에 雄據하였다前麗舊將大祚榮 得據太白山南城'고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승휴는 일연과 달리 周 則天武后 원년(684)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의봉 3년 이후를 측천무후 원년이라 추정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승휴는 왜 대조영이 측천무후 원년에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이해하였을까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해말갈 대조영은 본래 高麗의 別種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家屬을 이끌고 營州로 옮겨와 살았다(『구당서』 권199하 열전제149하 북적 발해말갈).

발해는 본래 粟末靺鞨로서 고려에 복속되어 있었으며, 姓은 大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挹婁의 東牟山을 차지하였다(『신당서』 권219 열전제144 북적 발해).

위에서 제시한 『구당서』·『신당서』의 기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해의 건국을 설명하는 시점을 건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李盡忠의 반란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고구려 멸망에서 찾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대조영의 행적과 발해의 건국이 고구려의 멸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녔다고 인식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³⁸⁾ 고구려의 멸망 이후 대조영집단은 營州로 遷徙되었는데, 이승휴는 이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승휴가 『신오대사』를 참조하여 『제왕운기』를 찬술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신오대사』 발해전에는 '武后 때에 契丹이 북쪽 변방을 공격하자, 고려의 별종인 乞乞仲象이 말갈의 酋長 乞四比羽와 함께 遼東으로 달아나 고려의 옛 땅을 나누어 왕이 되어 다스리니, 무후가 장수를 파견하여 걸사비우를 공격하여 죽였고, 걸걸중상도 병들어 죽었다. 걸걸중상의 아들 祚榮이 즉위하여 걸사비우의 무리를 병합하였는데, 그 무리는 40만 명으로서 挹婁에 응거하여 당나라 신하가 되었다.'고 전한다. 아마도 이승휴는 武后 때에 걸걸중상이 왕위에 오르고, 대조영이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고 전하는 『신오대사』의 기록에 유의하여, 측천무후 원년(684)을 발해 건국 시점으로 추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³⁹⁾ 『遼史』에 天顯 원년(926) 정월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전한다.⁴⁰⁾ 그런데 이승휴는 926년이 아니

38) 송기호,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1995, 24쪽.

39) 김진광, 앞의 논문, 2016, 488쪽에서 이승휴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 고종의 사망과 발해 건국을 배태한 측천무후의 즉위라는 상징성에 유의하여 대조영이 측천무후 원년에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추정하지 않았을까 주장하여 주목된다.

40) 『遼史』 卷2, 本紀2 太祖下 天顯元年 春正月, "庚申 拔扶餘城 誅其守將. 丙寅 命楊隱安端 前北府宰相 蕭阿古只等將萬騎為先鋒 遇譚讓老相兵 破之. 皇太子大元帥堯骨南府宰相蘇北院夷離董斜涅赤 南院夷離董迭裡是夜圍忽汗城. 己巳 譚讓請降. 庚午

라 925년에 발해가 멸망하였다고 『제왕운기』에 서술하였다.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8년(925) 9월 기록에 겨란이 발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고 전한다.⁴¹⁾ 고려인이 발해가 925년에 멸망하였다고 인식하였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승휴 역시 발해인이 대저 고려에 귀부한 925년에 발해가 멸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⁴²⁾

이승휴는 고구려기 다음에 후고려기, 백제기 다음에 후백제기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고구려기에서 고구려 멸망 이후 231년 동안 영토가 신라인에 의하여 병합되었다고 서술하였고, 백제기에서 백제 멸망 후 땅은 232년 동안 신라인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이승휴가 후고려와 후백제의 건국은 바로 고구려, 백제의 復國으로 이해하였음을 엿보게 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

한편 발해기에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끌고 王京에 來朝하였다(擧國相率朝王京)’라고 전하는데, 이승휴가 고려가 발해를 흡수 통합하였다고 인식하였음을 엿보게 해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여기다가 이승휴는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을 ‘前麗舊將’, 즉 ‘전고려(전고구려) 옛 장수’라고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휴가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고 인식한 사실을 반영한 표현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승휴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 신라를 모두 통합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녔다고 평가한 셈인데, 그는 본조군왕세기연대에서 이를 ‘三韓同一軌’라고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고려인들은 통상 후삼국 통일, 즉 신라와 후백제를 멸망시킨 사건을 三韓一統이라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승휴는 신라와 후백제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마저 고려가 흡수 통합하였다고 인식한 점을 특징적인 면모로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이승휴는 고려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삼한을 완벽하게 통일한 왕조로 자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⁴³⁾

이승휴는 한사군·삼한기에서 漢武帝가 위만조선을 정벌하고 거기에 漢四郡을 설치하였고, 이후 풍속은

駐軍於忽汗城南。辛未 譚讓素服 稿索牽羊 率僚屬三百餘人出降。上優禮而釋之。甲戌 詔諭渤海郡縣。……丙子 遣近侍康未怛等十三人入城索兵器 爲邏卒所害。丁丑 譚讓復叛 攻其城 破之。駕幸城中 譚讓請罪馬前。詔以兵衛譚讓及族屬以出 祭告天地 復還軍中。”

4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8년 가을 9월, “渤海本粟末靺鞨也。唐武后時 高句麗人大祚榮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因自稱渤海國 并有扶餘·肅慎等十餘國。……至是 契丹主謂左右曰 世讎未雪 豈宜安處。乃大舉 攻渤海大譚讓 圍忽汗城。大譚讓戰敗乞降 遂滅渤海。於是 其國人來奔者相繼。”

42)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태조 8년 을유를 後唐 莊宗 同光 元年이라 하였는데, 동광 원년은 925년이 아니라 923년에 해당한다. 이승휴가 同光三年을 同光元年이라 잘못 표기하였거나 판각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짐작된다(김진광, 앞의 논문, 2016, 491~492쪽). 한편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 백제기의 세주에 ‘羅之四十年 麗之十九年也’라 전한다. 그런데 판본에서 원래 ‘麗之九十也’라고 기술하였다가 ‘九十’ 위에 ‘十九’라고 덧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가 한나라 成帝 鴻嘉 3년 계묘년, 즉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구려가 건국된 지 19년은 기원전 37년이 되어 고구려기에서 밝힌 고구려의 건국 연대와 부합하게 된다. 반면에 ‘麗之九十也’란 기술이 옳다고 할 때, 고구려는 기원전 108년에 건국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종래에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여 고려시대에 고구려 건국 연대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존재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김현숙, 『삼국유사 내 주몽의 出自 기사를 통해 본 국가계승의식』,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일연학연구원, 2005; 신종원, 『고대사 사료로서의 『제왕운기』』, 『한국사학사학보』 34, 2016, 141~142쪽). 그러나 판각과정에서 ‘十九’를 ‘九十’이라 잘못 판각하였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덧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백제의 세주 기록을 근거로 고려시대에 고구려의 건국 연대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3) 채웅석, 『『제왕운기』로 본 이승휴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2012, 284쪽에서 신라왕 김부 및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의 고려 귀부 사실을 주목하여 이승휴가 신라의 삼국통일에 비하여 고려의 통일이 정통성을 보다 확고하게 계승한 것임을 부각시키려 하였다고 주장하여 참조된다.

점차 경박해져 백성은 편안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습算하고 浮沈할 때에 자연스럽게 경계가 나뉘어져 삼한이 성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다만 기원전 108년에 한사군을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였지만, 삼한은 언제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삼한 72국 가운데 대국은 北·東扶餘와 沸流, 尸羅, 高禮, 南·北沃沮, 穢와 貊이라 밝혔다.⁴⁴⁾ 종래에 크게 주목을 받은 구절은 바로 ‘이들 나라의 여러 군장은 누구의 후손인가, 世系 역시 단군으로부터 이어졌다此諸君長問誰後, 世系亦自檀君承’이다. 이승휴가 북·동부여와 비류, 시라, 고례, 남·북옥저, 예와 맥의 군장은 모두 단군의 후예로 인식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종래에 위의 구절을 주목하여 이승휴가 부여·비류·시라·고례·옥저·예맥뿐만 아니라 나머지 삼한 소국의 군장까지도 모두 단군의 후예로 인식한 다음, 단군조선에서 삼국에 이르는 상고사가 단군 후예의 대민 족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였다고 파악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⁴⁵⁾ 이승휴는 앞에서 인용한 구절 다음에 ‘其餘小者名何等 於文籍中推未能 今之州府別號是 諺說那知應不應’이라고 서술하였다. 즉 그는 시라와 고례 등은 삼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대국에 해당하고, 나머지 삼한의 여러 소국은 이름조차 알 수 없으며, 지금 州·府의 別號를 소국의 명칭과 연관시켜 이해하기도 하나 諺說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승휴가 시라와 고례 등 삼한의 大國 이외에 나머지 삼한 소국의 군장도 단군의 후예라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승휴는 신라를 건국한 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고,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은 天帝의 손자이고, 백제 시조 온조는 동명왕의 아들이라 언급하였다. 삼국의 시조 모두 단군의 후예가 아니라 天孫이라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승휴가 단군의 후예가 세운 나라는 전조선과 단군이 다스리는 영역에 존재한 시라, 고례, 부여, 옥저, 예와 맥, 그리고 비류라 인식하였을 뿐이고,⁴⁶⁾ 삼한 70여 국 모두와 삼국을 단군의 후예가 세운 나라로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군조선에서 삼국에 이르기까지 단군 후예의 대민족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승휴는 전조선 멸망 후에 중국인이 세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한사군이 한

44) 종래에 시라를 신라, 고례를 고구려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였지만(한영우,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27쪽; 최병현, 앞의 논문, 1994, 143쪽), 이승휴가 신라와 고구려는 각기 진한과 마한 땅에서 건국한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시라를 신라, 고례를 고구려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시라와 고례의 실체를 밝히는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로 최치원은 『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에서 신라를 尸羅라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한영우, 위의 책, 27쪽.

46) 『제왕운기』에서 인용한 단군본기에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壽也’라 전하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인용한 단군고기에는 ‘朝鮮·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理’라 전한다. 후자에 전하는 ‘檀君之理’는 ‘단군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에 전하는 ‘檀君之壽也’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강원전통문화연구소·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제왕운기』, 2010, 82쪽에서는 ‘단군의 시대에 속한다’고 해석하였고, ‘壽’를 ‘裔’의 誤記로 이해한 다음, 이를 ‘단군의 자손(후손)이다’라고 해석한 견해도 제기되었다(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수목신앙’, 『한국사학사학보』 7, 2003, 8쪽). 또한 ‘壽’를 ‘仁壽之域’의 줄인 말로 이해하여 ‘단군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다’라고 해석한 견해도 제기되었다(김성환, 「고려시대 단군관의 역사적 정립」, 『백산학보』 75, 2006, 339~340쪽; 김남중, 앞의 논문, 2020, 15쪽). 필자는 ‘壽’를 ‘壽域’의 개념으로 이해한 다음, ‘檀君之壽也’를 ‘단군이 다스리던 지역에 위치하였다’로 해석하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동안 전조선지역을 다스렸지만, 후에 단군의 후예들이 전조선지역에서 삼한의 여러 대국을 세웠고, 나머지 지역에 삼한의 여러 소국이 분포하였으며, 삼한지역에서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건국되어 삼한의 여러 소국을 포섭하여 궁극적으로 삼국이 정립되었다고 이해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삼한 70여 국의 군장이 모두 단군의 후예였고, 삼국 역시 그러하였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한사군 설치 이후 전조선을 이은 여러 대국이 삼한을 주도하였다고 이해함으로써 나름 단군이 세운 전조선 중심의 상고사를 체계화하려 의도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승휴가 三韓과 더불어 朝鮮을 我邦의 대명사로 사용한 것은⁴⁷⁾ 三韓分立的인 역사인식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이 우리 역사의 시원이자, 이후 단군의 후예가 건국한 부여 등의 대국이 삼한과 삼국의 역사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하였음을 반영한 측면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⁴⁸⁾ 이와 같은 이승휴의 역사인식체계는 나름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各國에 대한 인식과 평가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후조선의 시조가 기자이고, 준왕은 기자의 제41대손으로 위만에게 쫓겨 金馬郡(전북 익산시 금마읍)에 移居하여 도읍을 세우고 왕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조에 朝鮮侯 准(準)이 箕子の 40餘世라 전한다. 아마도 이에 의거하여 고려시대에 준왕이 기자의 41대손이라는 전승이 만들어졌고, 이승휴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준왕이 韓地에 가서 韓王이 되었다고 전하고, 『後漢書』 동이열전 한조에 마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스스로 韓王에 올랐다고 전한다. 『삼국지』에 준왕이 韓地에 갔다고 전하는 반면, 『후한서』에는 마한으로 갔다고 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 사서에서 준왕이 금마군으로 갔다고 전하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이승휴가 어떤 전승자료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주장하였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전하는 문헌 가운데 『제왕운기』의 기록이 준왕이 금마군으로 갔다고 주장한 최초의 자료라 할 수 있다.⁴⁹⁾

이승휴는 고구려가 마한 땅에서 건국되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준왕이 이주한 금마군을 마한과 연결시켜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승휴가 기자조선의 전통이 마한으로 이어졌다고 인식하지 않고, 준왕이 금마군에 移居하여 도읍을 세우고 다시 임금이 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는 후조선기에서 기자조선이 존속한 기간을 위만이 준왕을 축출할 때까지라고 서술하였을 뿐, 여기에 준왕이 금마군

47) 이승휴는 『제왕운기』의 帝王韻紀進呈引表에서 ‘夫豈三韓 曾見龍機成集’이라고 서술하였고, 또한 東國君王開國年代 地理紀에서 ‘中方千里是朝鮮 江山形勝名敷天’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승휴가 삼한과 더불어 조선을 我邦의 대명사로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48)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1982;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1998, 113쪽에서 ‘새로운 상고사체계와 고조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수록, 일면으로는 단군과 기자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조선은 삼한을 대신하여 아방의 대명사로 이해되고 쓰여지게 되었다. 그것은 곧 삼한일통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삼국유민의식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여 참조된다.

49) 權寧이 『應製詩註』에서 준왕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금마군으로 가서 개국하여 나라 이름을 마한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러한 견해가 널리 수용되었다(김정배, 「준왕 및 건국과 삼한정통론의 제문제」, 『한국사연구』 13, 1978, 7쪽).

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의 역사를 추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준왕이 금마군에 세운 나라가 언제 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승휴는 한사군 설치 이후에 ‘서로 바로잡아 주며 살아가는 도리가 저절로 끊어지고, 풍속은 점차 경박해져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여, 한사군의 고조선유민에 대한 통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삼한 가운데 大國으로서 단군의 후예가 세운 시라와 고례, 부여, 옥저, 예와 맥 등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단군 기원의 우리 역사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나를 강조하려 의도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한사군·삼한기에서 이승휴는 眞番과 臨屯은 남북으로 위치하고, 樂浪과 玄菟는 동서로 치우쳐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승휴는 진번은 대체로 평양 이남의 강원도 영서지역이나 황해도지역에, 임둔은 한반도 서북부 또는 압록강 서쪽의 만주지역에, 낙랑은 현재의 평양 일대에, 현토는 함경도와 강원도 동해안 방면에 위치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현재 임둔군의 15현은 대체로 함경도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분포하였고,⁵⁰⁾ 高句麗縣과 西蓋馬縣, 上殷台縣으로 이루어진 초기 현토군은 압록강 중·상류 및 渾江 일대에 위치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⁵¹⁾ 일반적이다. 이에 따른다면, 진번과 현토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낙랑과 임둔이 동서로 치우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승휴가 현토군이 동쪽에 위치하였다고 이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후한서』동이열전 동옥저조에 ‘武帝가 朝鮮을 멸망시키고 沃沮의 땅을 玄菟郡으로 삼았다.’고 전하는 기록 및 『삼국지』위서 동이전 동옥저조에 ‘漢武帝 元封 2년에 조선을 정벌하여 (위)만의 손자 右渠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4군을 설치하였으며, 沃沮城을 玄菟郡으로 삼았다.’고 전하는 기록이 주목된다.⁵²⁾ 아마도 이승휴는 이와 같은 중국 사서의 기록에 의거하여 현토군을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에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낙랑과 현토는 동서로 치우쳐 있다고 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임둔은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유추하여, 진번과 임둔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서술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승휴는 한사군·삼한기의 細注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신이 일찍이 上國에 사신으로 갈 때, 遼濱路 옆에 이르렀는데, 무덤이 하나 있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扶餘 駙馬大王의 무덤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賈耽이 말하기를, ‘大原 남쪽의 鴨綠江은 부여의 옛 땅이다.’라고 하였으니, 즉 北扶餘는 마땅히 요하 강변에 있었을 것이다. 북부여가 開國한 것은 대저 後朝鮮부터였으니, 지금까지 얼마인가?

위의 기록을 통해 이승휴가 북부여가 요하 강변에 위치하였다고 이해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동명본기에

50) 이병도, 「임둔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이현해, 「옥저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0, 2010.

51) 이병도, 「현토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169~176쪽.

52) 기원전 82년에 임둔군을 폐지하고, 그 영현을 현토군에 속하게 하였는데, 후대에 동옥저의 연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옥저성이 낙랑군 東都都尉에 예속되기 직전에 현토군에 속하였던 사실을 이와 같이 서술한 것으로 짐작된다.

서 金蛙王 때에 부여가 동쪽의 迦葉原으로 이주하여 東扶餘라 칭하였다고 하였다. 이승휴는 가탐의 말을 인용하여 압록강 일대가 부여의 옛 땅이라 하였는데, 결국 그는 압록강 일대가 迦葉原에 해당하고, 이곳이 바로 동부여가 위치한 곳으로 이해한 셈이 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른다면, 이승휴는 단군이 非西岬 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낳은 夫妻가 부여를 건국한 곳은 요하 강변이었고, 금와왕이 도읍을 압록강변으로 옮긴 이후에 해모수가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승휴의 이와 같은 부여에 대한 이해는 현재 북부여는 송화강 유역에, 동부여는 옛 북옥저지역에 해당하는 두만강 유역에 위치하였다고 이해하는 것과⁵³⁾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승휴는 고구려기에서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갈 때에 건넌 蓋斯水를 大寧江으로 비정하였다. 이구 보는 동명왕편에서 주몽이 도망갈 때에 건넌 강을 淹滯라 기술하였고, 細注로서 이것은 또한 蓋斯水라 부르는데, 지금 鴨綠 東北에 있다고 밝혔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제1 동명성왕 즉위년조에 전하는 건국신화에서는 주몽이 건넌 강을 淹淲水라 하였고, 세주로서 이것은 蓋斯水라고도 부르며, 압록 동북에 있다고 부기하였다. 아마도 『삼국사기』 찬자는 구삼국사에 전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승휴는 『삼국사기』와 동명왕편에서 개사수가 압록 동북에 있다고 기술한 사실을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대령강이라 비정한 것이다. 그는 주몽이 뱀박을 받아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동부여가 압록강 일대에 위치하였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개사수를 압록 동북에 있다고 언급한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압록강과 평양 사이에 위치한 청천강을 고대에 薩水라 불렀으므로, 개사수를 청천강으로 비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⁵⁴⁾ 이에 이승휴는 압록강과 평양 사이에서 청천강 이외에 비교적 규모가 큰 대령강을 주몽이 건넌 개사수로 비정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이승휴는 고구려기에서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馬韓 王儉城에서 건국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細注에서 王儉城은 지금의 西京이라 밝혔다. 이에 따른다면, 이승휴는 고구려가 시종일관 평양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이해한 셈이 된다고 하겠다. 일연은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고조선조에서 魏書를 인용하여 壇君王儉이 阿斯達에서 도읍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세주로 經에는 無葉山이라 하였고, 또는 白岳이라고도 하였는데, 白州(황해남도 배천군) 땅에 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白岳宮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부기하였다. 즉 단군왕검이 도읍한 아사달을 배천군 또는 개성 동쪽으로 비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인용한 古記에는 壇君王儉이 朝鮮을 건국하고 平壤城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이승휴 역시 단군이 평양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전하는 古記를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제왕운기』에서 단군이 어디에서 전조선을 건국하였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단군이 지금의 구월산으로 비정되는 阿斯達의 산신이 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건대, 그 역시 단군이 평양성, 즉 왕검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인식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승휴는 비록 주몽을 단군의 후예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주몽이 단군과 관련이

53) 북부여와 동부여의 위치에 대해서는 노태돈, 「부여국의 경역과 그 변천」, 『국사관논총』 4, 198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이 참조된다.

54)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博州條에 大寧江은 俗說로 博州江이라 부르고, 安北大都護府寧州條에 청천강은 옛날에 薩水라 칭하였다고 전한다.

깊은 王儉城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나름 전조선의 전통이 고구려로 계승되었음을 은연중에 부각시키려 의도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승휴는 삼국 가운데 신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신라에 대해 ‘풍속이 淳厚하고 습속이 아름다우며 온 나라가 태평하였다. 聖君과 賢相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니, 伏羲氏의 治世와 비교하건대, 무엇을 더 보낼 것이 있겠는가? 朝野가 엄숙하고 공손하여 기롱하는 폐단이 없었으며, 남녀가 화목하여 서로 다른 길로 다녔다. 길을 떠날 때에는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밤에도 문을 닫아걸지 않았다. …… 聖賢들이 모두 돌아와서 정사를 도우니, 어리석은 백성들도 모두 예법을 따랐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승휴가 신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김부(경순왕)가 고려에 귀부한 공덕으로 신라의 후손들이 고려에도 널리 퍼져 계속해서 慶事를 누렸다고 서술하였는데, 김부가 스스로 고려에 귀부한 사실이 이승휴가 신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주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승휴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고구려기에서 주몽의 개국 이후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대대로 이어가며 나라를 다스렸고, 때로는 강물과 맑고 깨끗함을 서로 다투었다.’고 기술하였고, 백제기에서 ‘혈통이 깨끗하고 蘭芷 자손도 번성하여 왕업은 松竹처럼 무성하였다. 후대의 왕이 혹 南夫餘라 부르기도 하였고, 혹 鷹準이라 칭하며 신라와 겨루었다.’고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승휴가 신라만큼은 아니지만, 고구려와 백제 역시 대부분의 시기는 태평하고 평안하였다고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승휴는 연개소문의 무도한 폭정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나라의 기틀이 기울여졌고, 보장왕 역시 법도를 잃어 민심을 안정시키지 못하자,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백제의 의자왕이 여색과 음악에 흠여 王度を 잃고 나라를 어지럽히자,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당나라가 백제를 정벌하여 멸망시켰다고 밝혔다. 결국 이승휴는 고구려와 백제 말기에 연개소문과 보장왕, 의자왕이 실정으로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자, 신라의 요청을 받은 당나라가 두 나라를 토벌하여 멸망시켰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승휴의 고구려와 백제 멸망에 대한 인식의 특징적인 면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부식의 이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삼국사기』에 전하는 史論은 金富軾이 찬술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⁵⁾ 김부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말미의 사론에서 고구려는 秦漢 이래로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으면서 겸손의 뜻이 없고 그 봉해진 강역을 침략하여 원수를 만들어 전쟁이 이어져 편안할 때가 거의 없었으며, 수와 당의 통일 이후 천자의 명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왕의 사람을 토굴에 가두는 등 완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중국에서 여러 번 죄를 묻는 군사를 보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어 비록 어떤 때에는 기이한 계책을 세워 대군을 이긴 적도 있었으나 마침내 왕이 항복하고 나라가 멸망한 후에야 그만두었으니, 처음과 끝을 보면, 위아래가 화합하고 못사람이 화목할 때는 비록 大國이라도 빼앗을 수 없었으나 나라(중국)에 不義하고 백성에게 不仁하여 못사람의 원망을 받게 되면서부터 무너져 스스로 떨어져 일어나지

55)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 I (고려시대편), 경인문화사, 2014, 302쪽.

못하게 되었다고 고구려 역사를 총평하였다.

한편 『삼국사기』 백제본기 말미의 사론에서 김부식은 ‘백제는 말기에 이르러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바가 많았다.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어 고구려와 連和하여 (신라를) 침략하고, 이익과 편의에 따라 신라의 重城과 巨鎮을 (두 나라가) 나누어 취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을 국가의 보배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나라 천자가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 그 원한을 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거역하여 大國에게 죄를 얻었으니, 그 멸망 또한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 김부식은 물론 고구려와 백제 지배층의 失政에 따른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이 두 나라 멸망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비중을 두고 강조한 것은 바로 두 나라가 당나라에 사대하지 않고 맞서다가 결국 大國에게 敗亡하였다고 인식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김부식은 사대명분론에 입각하여 고구려와 백제 멸망을 바라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당나라에 사대하지 않고 맞서다가 敗亡하였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연개소문과 보장왕, 의자왕의 暴政과 失政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되었던 측면을 부각시켰음을 살필 수 있다. 이승휴는 충렬왕 때에 원과 고려의 관계를 조공-책봉관계로 이해하였다. 이 때문에 『제왕운기』를 찬술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외침을 물리친 사실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⁵⁶⁾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국의 역사를 서술할 때에 김부식과 달리 사대명분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충렬왕은 원에서 시종하던 신료와 嬖幸 등 측근세력을 키워 권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승휴는 충렬왕 측근 세력이 자행하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修德한 국왕이 유교도덕을 충실하게 수양한 신료를 등용하여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기를 염원하였다. 그가 『제왕운기』를 찬술한 동기 역시 충렬왕에게 현명한 관료를 임용하여 왕정복고와 대몽화친으로 얻은 중흥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勸諫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⁵⁷⁾ 이와 같은 『제왕운기』의 찬술 동기를 염두에 둔다면,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국왕과 지배층이 정치를 잘하면 국가가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삼국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은 관점이 강하게 관철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고구려·백제 멸망의 주요한 원인을 중국에 사대하지 않고 맞선 것에서 찾지 않고, 국왕과 지배층의 실정에서 찾은 이유를 나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승휴는 후고려기에서 궁예가 경문왕의 庶子라고 언급하였다. 『삼국사기』 열전제10 궁예조에 궁예는 아버지가 제47대 현안왕 또는 경문왕이라 전한다. 이승휴가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궁예가 경문왕의 서자였다고 보았는지에 대하여 考究하기 어렵다. 이승휴는 궁예는 승려 시절에 마음속에서 짝튼 사악함을 깊게 숨기고, 후고려 건국 이후 28년 동안 난폭하고 방자하여 백성들을 태조 왕건에게 몰아다 준 인물로 평가하였다. 한편 그는 후백제기에서 견훤이 군사를 펴고 백성을 유혹하였으면서도 항상 인재를 아꼈다고 평가한 다음, 불효 자식 神劔 등에 의하여 폐위되어 金山寺에 유폐당하였다가 도망하여 태조에게 歸依하였다고 서술하

56) 채웅석, 앞의 논문, 2012, 283~291쪽.

57) 변동명, 「이승휴의 『제왕운기』 찬술과 그 사서로서의 성격」, 『진단학보』 70, 1990, 21~30쪽.

었다. 이승휴의 궁예와 견훤에 대한 평가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데, 그는 견훤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한 사실에 유의하여 궁예에 비해 견훤을 좀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짐작된다.⁵⁸⁾ 그런데 후백제기에서 ‘죽음에 임박하여 피를 토한들 지난 일을 어찌 다시 되돌릴 수 있겠는가? 아름답도다! 신라왕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알아서 정하였으니’라고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이승휴가 견훤이 김부처럼 자신의 결단으로 고려에 귀부하지 않고, 자식에게 폐위당한 다음에야 비로소 고려에 귀부한 사실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후고려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후고려의 첫 번째 도읍지를 金城이라 언급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승휴는 본조군왕세기연대에서 世祖(王隆)는 신라 때에 金城太守였고, 궁예가 北原에서 金城에 와서 나라를 세웠으며, 그 후에 철원군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서술하였다. 『삼국사기』 잡지제4 지리2 삭주조에 ‘益城郡은 본래 고구려 母城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金城郡이다.’라고 전한다. 여기서 익성군, 즉 금성군은 옛 강원도 김화군 금성면(북한의 강원도 김화군 김화읍)에 해당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궁예열전, 『고려사』 태조세기에 궁예가 金城을 도읍으로 삼았음을 알려주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⁵⁹⁾ 따라서 이승휴가 문헌에 전하는 자료를 근거로 궁예가 처음에 금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조군왕세기연대의 태조 왕건의 세계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의 細注에서 이승휴가 ‘철원군은 東州이다. 신이 일찍이 이 고을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⁶⁰⁾ 두 번 金城에서 놀았는데, 두 고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 이야기[궁예가 北原에서 金城에 와서 開國하였다가 철원군으로 도읍을 옮긴 것]를 들려주었다.’고⁶¹⁾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가 동주와 금성 두 고을 사람들의 전언을 근거로 궁예가 처음에 金城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제왕운기』에 기술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²⁾ 아울러 두 고을 사람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890년에 궁예가 금성을 도읍으로 하여 후고려를 건국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후고려기에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⁶³⁾

58) 한편 신라기에는 ‘번성하던 王業 장차 기울어지려 함에 궁예와 견훤이 주인보고 사납게 짓어 민심이 흉흉하고 귀의할 곳을 몰랐다[瓜綿椒蕢業將衰 裔萱向主行狂吠 群情海海未知歸].’라고 전한다. 이를 통해 이승휴가 궁예와 견훤 모두 신라를 배반한 반란자로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59)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궁예가 효공왕 2년(898) 가을 7월에 松岳郡에 도읍하였고, 효공왕 9년(905) 가을 7월에 鐵圓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전한다. 또한 궁예열전에는 乾寧 4년(897)에 송악군, 天祐 원년(904) 가을 7월에 철원성을 도읍으로 삼았다고 전하고, 『고려사』 태조세기에는 궁예가 처음에 철원을 도읍으로 삼았다가 光化 원년 戊午(898)에 松嶽으로 遷都하였고, 天祐 2년 乙丑(905)에 철원으로 遷都하였다고 전한다.

60) 『고려사』 이승휴열전에 이승휴가 東州副使를 역임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61) 『帝王韻紀』 下卷, 本朝君王世系年代, “世祖(諱隆 小宗龍建)於羅時 金城承錦寄. 弓裔自北原 開國於是地. 移都鐵原郡(今東州也, 臣嘗守是州 而再遊金城 二邑人歷歷傳說).”

62) 종래에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년을 받아들이어 진성여왕 9년(895)에 猪足과 狹川, 金城, 夫若, 鐵圓 등을 격파한 다음, 패서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성을 군사적 전진기지로 삼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후대에 금성을 도읍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와전되었다고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조인성, 앞의 책, 2007, 185~186쪽).

63) 홍창우, 앞의 논문, 2022, 79~80쪽.

I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찬술할 때에 활용한 전거자료와 그가 인용한 기록의 성격, 그의 고대사 편년과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各國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찬술할 때에 『삼국사기』에 전하는 기록을 주요 전거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를 國史라 표현하였다. 또한 그는 고려 후기에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이해하고, 그것의 건국자인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로 숭앙되면서 편찬된 檀君本紀에 전하는 기록 및 東明王篇에서 李奎報가 인용한 舊三國史 東明王本紀의 기록을 細注에 인용하였으며, 『新羅殊異傳』에 전하는 신라 건국신화의 기록을 참조하여 『제왕운기』 신라기에 반영하였다. 또한 『신당서』나 『신오대사』에 전하는 고구려 및 발해 관련 기록, 『五經正義』의 하나인 『尙書正義』에서 인용한 『상서대전』의 기록, 백제고기를 비롯한 여러 고기류에 전하는 기록을 세주에 인용하였다.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찬술할 때에 많은 자료를 참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유교적 합리주의와 鑑誡主義에 입각하여 고대 왕조의 興亡盛衰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단군이 전조선을 다스린 기간이 1,048년이었는데, 1,028년이라 잘못 추산하였고, 또한 위만조선의 멸망(기원전 108년)에서 신라 건국(기원전 57년)까지 52년에 불과하였으나 이를 72년이라 잘못 계산하였다. 그리고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한 935년이 본래 단군 기원 3,268년인데, 이를 3,288년이라 잘못 표기하였다. 한편 이승휴는 후고려기에서 궁예가 후고려를 890년에 건국하였다고 서술한 반면, 고구려기에서는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그 땅을 신라가 231년 동안 병합하였다고 표기하여, 마치 후고려가 건국된 해가 900년이라 혼동하게 만들었다. 이승휴는 東州(강원도 철원)와 金城(북한의 강원도 김화군 김화읍) 주민들의 傳言을 근거로 궁예가 金城을 도읍으로 하여 890년에 후고려를 건국하였다고 후고려기에 밝혔다고 짐작되며, 고구려기의 기록은 본래 ‘二百二十一’이었으나 ‘二百三十一’로 잘못 표기하였거나 또는 판각과정에서 ‘二’를 ‘三’으로 잘못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견훤이 935년이 아니라 936년에 고려에 귀부하였다고 이해한 사실과 『신오대사』 발해전의 기록을 근거로 발해가 698년이 아니라 684년에 건국되었다고 인식하였던 사실 등을 이승휴의 특징적인 편년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승휴는 후고려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인식하였고, 아울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및 후백제, 신라 등 三韓을 완벽하게 통일한 왕조로 자부하였다. 또한 그는 북·동부여와 남·북옥저, 尸羅, 高禮, 예와 맥, 沸流는 삼한의 대국으로서 그 군장은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인식하였다. 비록 나머지 삼한 소국의 군장 및 삼국의 시조가 단군의 후예라 인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사군 설치 이후 단군의 후예가 세운 대국들이 삼한과 삼국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여 단군이 세운 전조선 중심의 상고사를 체계화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역사인식체계는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나름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승휴는 후조선의 마지막왕인 준왕이 기자의 41대손이었고, 그가 위만에게 쫓겨 金馬郡에 가서 도읍을

세우고 임금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후한서』와 『삼국지』에 沃沮의 땅을 玄菟郡으로 삼았다고 전하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漢四郡 가운데 眞番과 臨屯은 남북으로, 樂浪과 玄菟는 동서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북부여는 본래 요하 강변에, 동부여는 압록강변에 위치하였다고 보았고, 주몽이 동부여에서 王儉城(평양)으로 갈 때에 건넌 강인 蓋斯水를 大寧江으로 비정하였다.

이승휴는 삼국 가운데 신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대부분은 태평하고 평안한 시기였으나 말기에 연개소문과 보장왕, 의자왕의 暴政과 失政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혼란해져서 고구려와 백제가 당나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고 보았다. 이승휴는 국왕과 지배층이 정치를 잘하면 국가가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왕운기』에 반영하려 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당나라에 맞섰다가 멸망하였다고 이해한 김부식과 달리 국왕과 지배층의 失政으로 인하여 두 나라가 멸망하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 이승휴는 자신의 결단으로 고려에 귀부한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왕(金傳)을 크게 치하한 반면에 궁예와 견훤은 신라를 배반한 반란자로 평가하면서도 견훤이 長男인 神劔에게 폐위되어 金山寺에 유폐당하였다가 고려에 귀부한 사실을 감안하여 궁예에 비하여 그에 대하여 좀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현양 등, 『역주 수이전 일문』, 박이정, 1996.
- 노태돈, 『한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1998.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한국고대사 사료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 송기호,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1995.
-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 I (고려시대편), 경인문화사, 2014.
-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 한영우,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 김남중,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의 저자와 성격」, 『한국학연구』 74, 2020.
- 김진광, 「이승휴 『제왕운기』의 고구려·발해 인식」, 『민족문화논총』 64, 2016.
- 박대재, 「단군기원과 고기」, 『한국사학보』 61, 2015.
- 박대재,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인식」, 『민족문화연구』 94, 2022.
- 박인호, 「『제왕운기』에 나타난 이승휴의 역사지리 인식」, 『조선사연구』 18, 2009.
- 박인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 2011.
- 변동명, 「이승휴의 『제왕운기』 찬술과 그 사서로서의 성격」, 『진단학보』 70, 1990.
- 서영대, 「단군 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이병도, 「임둔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 이병도, 「현토군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 이현해, 「옥저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0, 2010.
- 임상선, 「『제왕운기』에 보이는 북방왕조 인식」, 『사학연구』 103, 2011.
- 田中俊明,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くって-史料批判の再検討-」, 『月刊韓國文化』 33, 韓國文化院, 1982.
- 채웅석, 「『제왕운기』로 본 이승휴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2012.
- 최병헌,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고려시대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단군-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홍창우,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수용’과 ‘배제’의 논리에 주목하여-」, 『전북사학』 64, 2022.

* 이 논문은 2023년 2월 24일에 투고되어,
2023년 3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4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Lee Seunghyu's Perception of Ancient History through Jewangungi

Jeon, Deogjae*

This paper examines the source materials used by Lee Seunghyu when writing the Jewangungi,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he cited, his understanding of the chronology and system of ancient history, and hi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each dynasty. When Lee Seunghyu wrote the Jewangungi, he referred to the records of the Samguksagi, the Dangunbongi(檀君本紀) written in the late Goryeo period, the Gusamguksa Dongmyeongwangbongi(東明王本紀) cited by Lee Gyubo in the Dongmyeongpyeon(東明王篇), the Silla Suijeon(新羅殊異傳), Chinese history books and Sangseojeongui(尙書正義), and various old chronicles including Baekjegogi(百濟古記). He misestimated the period during which Dangun ruled the Former Joseon(前朝鮮) and the period from the fall of Wiman Joseon(衛滿朝鮮) to the founding of Silla, and 935 was originally 3,268 years of the Dangun era(檀君紀元), but he incorrectly marked it as 3,288 years. He also caused confusion by writing that Gungye founded Later Goryeo in 890 or 900, and figured out that Dae Joyeong founded Balhae in 684. Lee Seunghyu was proud that Goryeo was a dynasty that perfectly unified the three Han(三韓), including Balhae which succeeded Goguryeo, Later Baekje, and Silla. Also, he understood that the ruler of North and East Buyeo, South and North Okjeo, Ye and Maek, Biryu, which are the great countries among the Three Han, was a descendant of Dangun. He claimed that King Jun(準王) of Later Joseon(後朝鮮) went to Geumma-gun, and rated Silla the highest among the three kingdoms. He recognized that Goguryeo and Baekje were destroyed by the Tang Dynasty because the people were in trouble and the country was in chaos due to the mismanagement of Yeongaesomun and King Bojang, King Uija at the end of Goguryeo and Baekje. In addition, Lee Seunghyu defined Gungye and Gyeonhwon as rebels who betrayed Silla, but evaluated Gyeonhwon more favorably than Gungye considering the fact that he surrendered to Goryeo.

[Keywords] Jewangungi(帝王韻紀), Lee Seunghyu(李承休), Dongmyeongwangbongi(東明王本紀), Dangun, Three Han(三韓).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